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 유형과 심리적 복지*

-방송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The Learning Motivation Typ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Married Women
-Focused on the Students i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석사 박지선**

조교수 성미애***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Master : Park, Ji-Sun

Assistant Professor : Sung, Miai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arning motive types and degree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married women attending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the types of learning motives.

For these purposes, a survey was conducted to 263 middle-aged married women from 36 to 60 at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learning motive types of middle-aged women could be classified into 3 types; a non-oriented type, an activity and goal-oriented type and a multi-oriented type. A multi-oriented types were the most popular among those. Second, the overall level of self-respect was above the median, but the life satisfaction level was below the median. Third, there was difference in their self-respect level according to the learning motive types. That is, students who had a multi-oriented learning motive were higher self-respect level than those who had an activity and goal-oriented learning motive. Therefore, lifelong education is very significance in these days when average life span is prolonged.

▲주요어(Key Words) : 중년기 기혼 여성(mid-life married women),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학업동기 유형(the learning motivation types),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 본 논문은 박지선(2007년) '방송대 재학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와 심리적 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꼼꼼한 심사로 본 논문의 오류를 지적해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주저자 : 박지선(E-mail : jisuning@nate.com)

*** 교신저자 : 성미애(E-mail : eliza_s@knou.ac.kr)

I. 문제제기

중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최전성기에 이르는 시기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성숙을 이루는 시기로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중년기는 어머니, 아내로서의 역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자신의 욕구와 발전에 대해 결혼 이후 처음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시기가 된다. 따라서 노년기가 인생의 1/3을 차지하게 되는 여성이, 풍요로운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중년기 때부터 다양한 취미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면서 생활양식을 만들어 가는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년기 기혼 여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발간되었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취업여부(김영숙, 2006; 신기영, 1999; 이희정·이숙현, 1995; 조옥희, 2004; 진미정, 1993), 자원봉사활동(김현숙, 2006; 손영익, 2006; 조예정, 2002), 역할갈등(신기영, 1999; 조옥희, 2004; 진미정, 1993), 가족관계(조옥희, 2004; 한민아, 2004), 가족생활사건(김경민, 2004), 가족생활주기(전효정, 2007), 사회관계망(김명자·박수정, 1992; 최덕신, 1992), 부부친밀감과 부부의사소통(김명희, 2006) 등과 중년기 기혼 여성의 자아존중감(김영숙, 2006; 신기영, 1999; 전효정, 2007; 진미정, 1993 등), 생활만족도(김명희, 2006; 김영숙, 2006; 신기영, 1999; 조옥희, 2004; 진미정, 1993 등), 심리적 복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들에 따르면, 중년기 기혼 여성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았으며,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중년기 기혼 여성은 대부분 대졸이상의 높은 교육수준과,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은 직업, 경제력과 관계가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처행동 수준이 높았고, 역할갈등을 적게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고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 수준도 높은 편이었다. 이처럼 중년기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복지감은 자신에 대한 존중,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과 밀접히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 여성 관련 연구의 연장선으로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사람들은 학업을 통해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삶을 간접 경험하게 되며 세상을 보는 시각도 폭넓게 확대한다. 따라서 세계화, 정보화, 고도 기술화 사회로 돌입하면서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며,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노년기에 대한 대비와 삶의 재충전 차원에서 중년기의 학업이 중요하다. 더욱이 지금 중년기에 해당되는 기혼 여성들의 경우 1950,

60년대 출생 코호트로, 전후 복구 상황에서의 경제적 어려움과 남녀차별 의식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고등교육의 기회에서 소외 될 수밖에 없었다.¹⁾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년기 기혼 여성에게 학업은 단순한 지식습득 이상으로 중년기 심리적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중년기 기혼 여성은 학업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도 있고, 학업을 통한 간접경험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음으로써 인격의 발전과 성숙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특히 중년기 기혼 여성이 건설적으로 중년기에 접근해 나간다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가시간은 많고 활동 잠재력이 큰 중년기 기혼 여성에게 일정한 사회적 역할과 생산 활동에의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개인적으로 소외감을 덜고 심리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에서는 이들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정옥분, 2000: 327). 이러한 노력은 곧 생산적인 노년기를 위한 전인차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학업을 실제 실천하고 있는 방송대 재학 중년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학업동기 유형과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대의 경우 우리나라 유일의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국립대학으로, 1972년 전 세계적인 평생교육 추세에 발맞추어 개교하였다.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의 개선이라는 이념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청년교육, 성인전기교육, 성인중기교육, 성인후기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취학전 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여 말하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종서 등, 1994: 43). 따라서 현재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취미, 여가, 스포츠 등에 치중되어 있는 성인여성 평생교육의 장을 고등교육의 장으로 확대하는 의미에서, 방송대에 재학하고 있는 중년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학업동기 유형과 심리적 복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방송대의 경우 전체 재학생 비중 중 기혼 여성의 비율이 1995년 9.3%에서 2004년 19%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학업동기유형과 심리적 복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학업동기가 비교적 유사한 집단끼리 모여서 유형화해서 살펴보는 작업은, 동일하게 인생의 중년기에 대학 교육을 선택한 기혼여성들이지만,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과 현재 상황에 따라 학업동기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학업동기를 보다 간결한 유형으로 제시하여 학업동기 유형별 심리적 복지를 파

1) 한국교육개발원(1986)에 따르면, 1975년도 여성(18~21세)의 고등교육(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취학률은 9.5%로 현 중년기 여성은 고등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년기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복지(자아 존중감, 생활만족도)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 유형별 심리적 복지(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는 중년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영역 지평을 확대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중년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및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아울러 평생교육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이 시점에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 콘텐츠를 구성할 때도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II. 관련 연구 고찰

1. 중년기의 학업

중년기는 인간발달 관점에서 보면 가장 생산적인 시기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위기의 시기가 되기도 하고 성숙을 이루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 즉 인생의 정상을 향하여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시기로, 완숙한 인성의 개화를 볼 수 있으며, 결실된 능력이 무르익어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활동의 범위가 최고로 확대되고 공헌과 책임이 요구되는 시기이다(한혜경 등, 2006: 119).

또한 중년기를 가족생활주기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를 독립시키면서 자녀 없이 부부가 노후에 대비를 해야 하는 준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기혼 여성 중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여가시간의 증가와 가족 내 역할감소로 인한 역할부족 또는 역할상실을 경험(신기영, 1999)할 수도 있다.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빠른 정보의 유통, 전문지식의 폭발, 경제의 세계화 등 빠르게 발전하는 성장지향적 사회에서 재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시기보다 이 시기는 내면의 필요에 의해서든 환경의 요구에 의해서든 학업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원래 학업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고, 삶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며, 창조력, 자기충족감, 심오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유도한다(Weathersby, 1981). 즉, 학습경험은 학습자들의 자아개념이나 자긍심, 또는 그

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영향(Tennat & Pogson, 1998: 16)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그것에 관련한 학습욕구가 생긴다(김양희, 2003: 27).

특히 중년기 기혼 여성은 학업에 임하면서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배우고 익힌다.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에의 참여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며 전문인으로서의 성장의식을 제고시키기도 한다. 더욱이 지금 현재 중년기에 있는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남녀 차별적 인식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성장 코호트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이 시기에 학업 욕구는 어느 시기, 어느 코호트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평생교육의 중요도를 살펴본 연구(최돈민 등, 2005)에서도 응답자 중 중년기 여성의 거의 대부분인 97%는 평생교육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평생교육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기계발, 여가활용의 이유와 개인적 관심이라고 표현하면서 가장 높은 참여 동기를 보였다. 이처럼 중년기 기혼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본질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욕구의 충족은 시대적 요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을 하나의 변수로 살펴보는 것은 중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주제의 확대에 기여하며, 평생학습사회에서 중년 여성이 자기주도적인 노년기를 계획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학업동기는 학습활동을 일으키고 강도 높게 지속시키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안범희, 2007: 92)이기 때문에, 중년기 기혼 여성의 평생학습 의지가 실제 심리적 복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유형과 심리적 복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2. 중년기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란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측정해 주는 지표로,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었던 생활만족도와 행복감 등의 개념 중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다(전영자, 1992). 그러므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심리적 복지에 관한 관심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심리적 복지의 개념을 살펴본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정서적 차원에 초점을 두어 정의를 내렸는데 Bradburn(1969)은 심리적 복지가 긍정적, 부정적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와 비교함으로써 얻게 되는 총체적인 판단을 심리적 복지라고 하였다(신기영, 1999

에서 재인용). 이후 Bryant 와 Veroff(1982)는 심리적 복지를 생활경험에 대한 반응과 정신 건강에 대한 자기 지각으로 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고 정의함으로써 정서적 차원에다 인지적인 차원의 평가를 추가시켰고, 그 영향권을 생활 전체로 확장시켰다.

중년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심리적 복지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보면 주로 취업여부(김영숙, 2006; 신기영, 1999; 조옥희, 2004; 진미정, 1993), 가계소득(김명자, 1989; 조옥희, 2004, 2005), 교육수준(김명자, 1989; 김현화, 1992; 신기영, 1991), 종교 및 여가생활(김명희, 2006), 사회봉사활동 및 자기개발동기(김현숙, 2006; 손영익, 2006; 조예정, 2002), 가족 생활사건(김경민, 2004), 가족생활주기(전효정, 2007), 사회관계망(김명자·박수정, 1992; 최덕신, 1992), 부부친밀감과 부부의사소통(김명희, 2006), 자아존중감(김영숙, 2006; 조옥희, 2004) 등과 심리적 복지와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나 학업동기유형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없다. 중년기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해서 살펴보는 학업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스스로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면서 몰입하게 하고 학습자들의 자아개념이나 자긍심, 정체성에도 영향을 준다(Tennat & Pogson, 1998: 16). 따라서 중년기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로 학업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년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심리적 복지를 다룬 연구들(김명자, 1989; 김명자·박수정, 1992; 김명희, 2006; 김영숙, 2006; 김현화, 1992; 신기영, 1999; 조옥희, 2004; 진미정, 1993 등)에서는 심리적 복지를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등의 하위영역으로 세분해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심리적 복지를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와 만족을 의미하는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고 정의하고, 자아존중감은 자기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 자기가치에 대한 판단과 이 판단과 연합된 감정이라 정의한다.

3.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 유형과 심리적 복지

자아실현의 욕구는 인간이 바라는 최대한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 실현해 나가려는 욕구로, 인간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끊임없이 학습에 참여한다(안범희, 2007: 147). 따라서 자아실현에의 욕구는 중년기 기혼 여성들이 계속하여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형성의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원래 동기는 행동의 방향 뿐 아니라 행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정순례, 2007: 231), 학업 그 자체 보다는 학업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를 알아보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중년기에는 육체적 힘 보다는 정신적 능력을 평가의 기준과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삼으며, 이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부모의 사망이나 자녀의 독립 등 여러 가지 생활사건 속에서 타인으로서의 관심 확대나 활동에 재투자를 하지 못하면 정서적 빈곤을 경험하기 쉽다(Peck, 1968).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 노년기 여성들이 생활수준을 높게 평가하며(김재인, 1987),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이나 지루함, 스트레스 등에서 벗어나 교육적 환경을 접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하고, 지적 흥미와 직업적 성취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학습에 참여한다는 보고(최운실, 1986)를 보면, 학업에의 동기는 새로운 생활의 활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역할 비중을 남편이나 자녀보다 자신에게 두고 생활하는 중년기 기혼 여성들이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김금운, 1999)를 보면, 중년기의 학업동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도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학업과정에서의 성공 경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되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도 갖기 때문에 자아를 재평가하는 중년기에 학업동기를 갖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고 자기확신감을 키울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성인의 학업동기에 대해 Houle(1961)은 활동지향 동기, 목적지향 동기, 학습지향 동기라는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즉 성인교육에 참여하는 성인 모두 학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이 동기를 크게 세 가지 하위영역인 활동지향 동기, 목적지향 동기, 학습지향 동기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활동지향 동기는 학습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사회적 인간관계의 유지, 개선, 확대에 의미를 두며, 고독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학업을 지속한다. 목적지향 동기는 교육을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여기고 지식은 쓸모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뚜렷한 목표를 성취하거나 관심 확인, 요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학습지향 동기는 지식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아개념을 갖고서 학습에 몰두한다.

이 외에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업동기를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구분(조현철, 2007)하기도 하고, 내적가치, 자기효능, 호기심 및 자신감으로 구분(김동형, 2005; 이희영, 1996)하기도 한다. 또한 무동기, 실패동기, 상대적 유능성, 자기유능감, 사회적 성공, 사회가치동조, 지적성장추구, 지적만족추구의 8단계로 구분(이영미, 2007; 임은미, 1998)하기도 하며, 목표지향, 성취가치, 자아효능감을 학업동기의 중요 요인(문은식, 2002; 이경자, 2006)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인학습자를 상대로 학업동기를 체계적으로 고안한 것에 의미(이상곤, 2005)

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Houle의 활동지향 동기, 목적지향 동기, 학습지향 동기를 재분류하여 학업동기 유형별 심리적 복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Houle은 각 지향 동기가 구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중년기에 대학교육을 선택한 사람들에게서는 활동지향 동기, 목적지향 동기, 학습지향 동기가 어느 정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Houle의 세 가지 학업동기를 재분류하여 유형화하고자 한다. 유형화는 학문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경험적인 연구 자료를 추상화하고 조합하여 경험적인 사례를 비교하는 기초가 된다(McKinney, 1966: 3). 즉 유형화는 분절되지 않고 연속되어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인식할 수 있는 연구 대상으로 만드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형화는 변수들의 차원과 상호관련성을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어떤 개념의 지표를 얻어내고 지수화 하는 논리적 또는 경험적 절차이다(김경동·이온죽, 1994: 346). 따라서 서로 관련되어 있는 학업동기의 다양한 속성을 한꺼번에 고려하면서도 각 연구대상이 어떤 속성의 학업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활동지향 동기, 목적지향 동기, 학습지향 동기가 어느 정도 공존하고 있는 중년기 기혼여성의 학업동기별 심리적 복지를 살펴볼 때는 학업동기를 유형화해서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동일하게 인생의 중년기에 대학교육을 선택한 기혼여성들이지만,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과 현재 상황에 따라 학업동기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연구 집단 내 다양성을 유형화를 통해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 과정

본 연구는 방송대에 재학 중인 36~60세 사이에 있는 중년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2006년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체크한 뒤, 2006년 11월 3일부터 2006년 11월 24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1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283부를 회수(회수율 91.3%)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조사대상자에 맞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질문지 20부를 제외한 26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의 구성

1) 학업동기

학업동기는 학업활동을 일으키고 강도 높게 지속시키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학업동기는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데, 활동지향 동기에는 사회적 관계형성, 외적 기대 충족, 사회적 인정 및 참여, 현상의 변화와 발전을, 목적지향 동기에는 직업성취 및 전문성 함양을, 그리고 학습지향 동기에는 지적인 흥미, 자아실현·자기발전의 내용이 포함된다. 학업동기 척도는 중년기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에 관한 조사(최운실, 1986)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활동지향동기(18문항), 목표지향동기(6문항), 학습지향동기(8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지향동기의 경우, 학업동기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서', '여럿이 모여 함께 배우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주위 사람들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목표지향동기의 경우, '지루한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환경을 접해보고 싶어서', '학위(수료증)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 '이전에 배운 지식 이외의 폭넓은 지식 교양에 접하고 싶어서'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학습지향동기의 경우 '지식이나 기술 획득 그 자체가 보람 있게 느껴져서', '학습을 통해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 '배움을 통해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총 32문항의 5점 리커트형(범위 32-160)척도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2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2)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측정해 주는 지표로서 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Bryant & Veroff, 1982)를 의미한다. 중년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신기영, 1999; 이희정·이숙현, 1994; 진미정, 1993)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를 중년기 기혼 여성이 자신과 생활전반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한다. 심리적 복지를 측정하는 하위영역으로 중년기 기혼 여성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자아존중감과,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생활만족도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72)가 개발하고 진미정(1991)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 총 10문항의 5점 리커트형(범위 10-50)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생활만족도 척도는 자신이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기 위해 Cambell 등(1976)이 구성한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의 7점 리커트형(범위 12-84)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에 만족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4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평균,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심리적 복지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학업동기 유형을 나누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유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및 추후검증(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업동기 유형별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 및 추후검증(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 연령은 평균 43세였으며, 방송대 입학이전의 교육수준은 대부분 고졸이었다. 과반수가 전업주부이며, 조사대상자의 학업관련 특성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중년기 기혼 여성의 방송대 재학기간은 평균 2.6년으로 인문·자연과학대학의 학생이 많았다. 학비조달은 절반가량이 본인, 거의 절반가량이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과반수가 학업이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많이 된다고 밝혔는데, 주로 생활의 활력이 되거나 자녀에게 모범이 된다고 밝힌 경우가 31% 정도였다. 하지만 무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이러한 해석은 제약이 있다. 한편, 학업은 삶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부족, 학습능력이나 자신감부족, 직장생활이나 양육 등과 양립하기 어려움 등의 장애요인으로 학업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

(N=263)

특 성	집 단	빈도(%)	특 성	집 단	빈도(%)	
연 령	36~40세	78(29.7)	직 업	전업주부	168(63.9)	
	41~45세	79(30.0)		전문·관리직	15(5.7)	
	46~50세	56(21.3)		전문기술·사무직	42(15.9)	
	51~55세	29(11.0)		생산직	1(.4)	
	56~60세	14(5.3)		자영업	8(3.0)	
	무응답	7(2.7)		영업·기술·서비스직	16(6.1)	
	평균 43세			기타	13(4.9)	
방송대 입학 이전 교육수준	고 졸	196(74.6)		개인소득 유무	유	95(36.1)
	대 졸	64(24.3)			무	168(63.9)
	대졸 이상	3(1.1)				

<표 2>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성

(N=263)

특 성	집 단	빈도(%)	특 성	집 단	빈도(%)
가족유형	부 부	9(3.4)	가계소득	100~199만원	5(1.9)
	부부·자녀	200(76.0)		200~299만원	32(12.2)
	부부·자녀·시부모	38(14.4)		300~399만원	66(25.1)
	부부·자녀·친정부모	6(2.3)		400~499만원	46(17.5)
	부부·시부모	1(.4)		500~	91(34.6)
	본인·자녀	6(2.3)		무응답	23(8.7)
	본인·친정부모	3(1.1)		평균 501만원	
	배우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6(2.2)	자녀 수	1명
고 졸		59(22.0)	2명		177(66.3)
대 졸		157(58.8)	3명		26(9.7)
대졸이상		34(12.7)	4명		2(.7)
무응답		7(4.3)	5명		1(.4)
			없 음		11(4.1)
		평균 2.1명			

<표 3> 조사대상자의 학업관련 특성

(N=263)

특 성	집 단	빈도(%)	특 성	집 단	빈도(%)
방송대 재학기간	1년 미만	83(31.6)	학업의 도움I-1	생활의 활력	42(16.0)
	2년 미만	92(35.0)		자녀에게 모범이 됨	41(15.6)
	3년 미만	27(10.3)		지식습득	19(7.2)
	4년 미만	18(6.8)		자기성취·만족감	18(6.8)
	5년 미만	26(9.9)		심리적 안정	15(5.7)
	6년 이상	17(6.6)		의사소통으로 인한 자녀의 이해	13(4.9)
	평균 2.57년			자녀 학습지도	12(4.6)
전공대학	인문과학	123(46.8)		자신감	11(4.2)
	사회과학	20(7.6)		긍정적 사고	9(3.4)
	자연과학	69(26.2)		직업관련	9(3.4)
	교육과학	51(19.4)		가족에 대한 이해	8(3.0)
				계획적 시간 사용	7(2.7)
학비조달	본 인	138(52.5)		미래를 위한 준비	5(1.9)
	가 족	124(47.1)		생활(의, 식, 주)에의 적용	3(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4)		인간관계·사회생활에 도움	2(.8)
학업의 도움I	도움이안된다	8(3.0)		무응답	49(18.6)
	보통이다	39(14.8)		시간부족	105(39.9)
	도움이된다	166(63.1)	학습능력이나 자신감의 부족	46(17.5)	
	도움이 아주	48(18.3)	직장생활·가정생활 등과 양립하기	39(14.8)	
	많이 된다		어려움	23(8.7)	
학업의 어려움			체력부족	17(6.5)	
			가족 및 주의 사람들의 이해 부족	13(5.0)	
			방송대 학업에 대한 인식 부족	5(1.9)	
			경제적 어려움	2(.8)	
			직장에서의 협조와 학습기회의 부족	13(4.9)	
		어려움 없음			

<표 4>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 유형

(N=263)

변 수	하위영역	평 균	표준편차	범위(중간값)
학 업 동 기 유 형	활동지향동기	59.86	10.05	21-87(66)
	목적지향동기	25.21	5.18	7-30(23)
	학습지향동기	32.24	3.99	8-40(32)

2. 학업동기의 전반적 경향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 유형의 세 가지 하위영역인 활동지향, 목적지향 및 학습지향 동기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의 하위영역인 활동지향 동기는 평균 59.86점(범위 21-87)으로 중간값(66)보다 낮은 수준이고, 목적지향 동기는 평균 25.21점(범위 7-30)으로 중간값(2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학습지향 동기는 평균 32.24점(범위 8-40)으로 중간값(32)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즉 방송대 재학 중년기 기혼 여성의 경우 목적, 학습지향의 동기가 평균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활동지향 동기는 평균보다 조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학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진학이나 직업적 성취와 전문성 함양,

그리고 지적흥미와 자기발전으로 학업에서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등 뚜렷한 목적의식과 지속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학업동기 유형화

1) 학업동기 유형 집단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를 활동지향, 목적지향 및 학습지향 동기라는 세 가지 변수로 유형화를 해서 살펴보고자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 제시한 것처럼 3가지 집단으로 유형화 되었으며, 일원분산분석과 scheffé 검증 결과 유형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 유형이 활동지향, 목적지향 및 학습지향 동기라는 세 변수에 의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세 개 집단으로 적절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표 5> 학업동기 유형별 각 하위변수 점수의 일원분산분석

하위변수	집단(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é
활동지향	1유형(81)	49.90	9.05	104.54***	a
	2유형(67)	60.79	4.85		b
	3유형(115)	66.32	8.34		c
	계(263)	59.86	10.50		
목적지향	1유형(81)	18.68	3.43	82.39***	a
	2유형(67)	22.52	2.15		b
	3유형(115)	24.50	3.14		c
	계(263)	22.21	3.99		
학습지향	1유형(81)	26.10	4.28	143.41***	a
	2유형(67)	31.16	1.69		b
	3유형(115)	34.91	3.85		c
	계(263)	31.24	5.18		

***p<.001

<표 6> 학업동기 유형별 각 변수의 표준화 점수와 집단 간 순위

변수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N=81)	(N=67)	(N=115)
점수부호		(- - -)	(+ + -)	(+ + +)
활동지향		-2.7723 3	3.3773 2	3.6845 1
목적지향		-3.1132 3	3.7537 2	4.0841 1
학습지향		-3.2623 2	-3.8955 3	4.9054 1

* 표에 제시되어 있는 +/-부호는 활동지향동기, 목적지향동기, 학습지향동기의 순서로 학업동기 점수를 표준화 시킨 것임.

이상과 같이 군집분석을 통하여 세 개 집단으로 구분한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유형별로 세 개 변수의 표준화된 점수와 scheffé 검증 결과를 기초로 집단간 점수 순위로 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활동지향 동기에 대한 점수는 유형 3의 경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형 2, 유형1의 순서로 낮아진다. 목적지향 동기에 대한 점수는 유형 3의 경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형 2, 유형 1의 순서로 낮아진다. 학습지향 동기에 대한 점수는 유형 3의 경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형 1, 유형 2의 순서로 낮아진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다음 세 가지 학업동기 유형의 명칭을 부여하고자 한다.

유형 1은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의 동기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며(-, -, -), 특히 다른 유형에 비해 목적지향 동기 점수가 낮다. 이러한 유형은 본인의 강한 의지로 학업을 시작했

들의 권유로 학업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년의 시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학업을 하는 데 있어 사회적 관계형성이나 전문성 함양 등 직업성취와도 관련이 없고, 지적흥미와 자기발전을 위한 것도 아닌, 학업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을 '무지향동기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 유형이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8%이다.

유형 2는 활동지향, 목적지향의 동기의 경우 양의 값을 가지지만 학습지향 동기는 음의 값을 갖는 것(+, +, -)으로, 이러한 유형은 사회적 인정과 참여 등 사회적 관계형성에 목적을 두고 진학, 직업, 경제적 성공 등과 함께 전문성 함양에 뜻을 두고 본인의 의지로 학업을 시작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을 '활동 및 목적지향동기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 유형이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5%이다.

유형 3은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의 동기가 모두 양

의 값을 가지며(+, +, +), 다른 유형에 비해 세 차원의 동기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이고, 특히 활동 및 목적지향형 동기 유형과 비교해 볼 때 학습지향 동기 점수가 높다. 이 유형은 활동도 하고 목적, 학습지향적인 동기에 있어 높은 점수를 보이므로 '멀티지향동기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는 공부하면서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학업과제를 이해하는 데서 즐거움과 유능감을 느끼는 임은미(1998)의 자율적 동기유형과 유사하다 볼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중년기 기혼 여성은 스스로 학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 뚜렷한 목적의식과 지속의지가 있어 학업에서 가치와 보람을 느낀다. 이 유형이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7%로 가장 많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방송대 재학 기혼 여성의 경우 평생 교육의 기회는 동일하게 선택하였으나 학업동기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방송대가 4년제 대학의 특성을 가지며,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인 만큼 다른 어떤 학업동기 유형보다 활동, 목적 및 학습지향의 동기를 모두 보이는 멀티지향동기를 갖고서 학업을 지속하는 재학생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심리적 복지

중년기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하위영역인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전반적 경향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중년기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복지의 하위영역인 자아존중감은 평균 32.63점(범위 22-41)으로 중간값(32)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심리적 복지의 하위영역인 생활만족도는 평균 59.16점(범위 12-84)으로 중간값(60)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즉 방송대 재학 중년기 기혼 여성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평균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활만족도는 평균보다 조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학업이 인간의 생활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최돈민, 2007), 고등교육의 기회가 자아존중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시기에 수행해야 하는 다른 역할과 함께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부족, 경제적 문제, 교육에 대한 안내와 정보 부족 등 성인들이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 환경들(최돈민 등, 2005)로 인해 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 유형별 심리적 복지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 유형별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일원분산분석과 추후검증(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 유형별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학업동기 유형별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F=4.64, P<.01)를 보였으며, 추후검증 결과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한 활동 및 목적지향동기형에 비하여 멀티지향동기형이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학업동기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교육에 있어 학습자들의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멀티지향형 학업동기를 가진 중년기 기혼 여성은 사회적 참여와 관계형성을 위한 활동, 직업성취 및 전문성 함양 등의 목적, 그리고 자기 발전과 자아실현에 대한 학습의

<표 7> 중년기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복지의 전반적 경향

(N=263)

변 수	하위영역	평 균	표준편차	범위(중간값)
심리적복지	자아존중감	32.63	3.06	22-41(32)
	생활만족도	59.16	13.61	12-84(60)

<표 8>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 유형별 심리적 복지

변 수	집 단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	scheffé	
심리적 복지	자아 존중감	무지향동기형	81	32.17	3.17	4.64**	a b
		활동및목적지향동기형	67	32.10	2.68		a
		멀티지향동기형	115	33.27	3.02		b
생활 만족도	무지향동기형	81	57.38	13.79	1.04		
		활동및목적지향동기형	67	59.54			11.57
		멀티지향동기형	115	60.19			14.71

**p<.01

열의가 높다. 이는 전문지식을 알아가고 평가하는 대학 교육에 있어서 활동지향과 목적지향의 동기만을 가지고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로 학업을 실천한 경우 중년기에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자아존중감 상실을 경험하지 않고 자아존중감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Maslow(1968)의 욕구단계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즉 자신의 가치관을 충실히 실현시키려는 자기실현의 욕구에 따라 학습지향의 동기를 갖고 학업을 선택한 경우, 자신에 대한 만족감에서 자아존중감을 잘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키고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자 하며, 실제적으로 고등교육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삶의 자세는 중년기 기혼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 여성들의 학업이 그들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동기유형별로 살펴봄으로써 중년기 기혼 여성들의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대 재학 중년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2006년 11월 3일부터 24일까지 질문지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와 그에 대한 분석 검증을 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는 무지향동기형, 활동 및 목적지향동기형, 멀티지향동기형의 세 가지로 유형화되며, 이 중 멀티지향동기형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중년기에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욕구가 다차원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평생교육기관도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계 형성 동아리 활동 지원, 실용지식을 위한 교양과정 개설, 수준 높은 다양한 교과목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중년기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나 생활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학업이 자아존중감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중년기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

용한 생활자원이 되기는 하지만, 이 시기에 담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역할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생활의 만족을 낮출 정도로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시대를 맞이하여 성인학습의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기관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습장애 요소가 되는 시간부족 및 학습능력 개발 문제, 직장 및 가정생활과의 양립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년기 기혼 여성은 학업동기 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를 보인다. 즉 멀티지향동기형의 경우 활동 및 목적지향동기형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학습에 열의를 가지고 학업에 임하는 경우 학업성취에서 오는 만족감이 자기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년기 기혼 여성이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면서 계속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부하면서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과 유능감을 느끼는 자율적 동기, 진학·직업·경제적 성공을 위한 전문지식 학습에 대한 사회적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중년기 기혼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욕구의 충족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문제를 재정립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교육체계가 요구된다.

이처럼 평생학습 사회에서 중년기의 학업경험은 자아정체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배움에 대한 열기가 강한 우리사회에서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성인학습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중년기 기혼 여성이 또 다른 자아를 찾아가는 데 큰 지지대가 될 수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는다. 첫째,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 유형별 심리적 복지의 차이는 밝혔으나 중년기 기혼 여성 자체를 학습자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논문의 문제제기가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측면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경력을 생애사적 맥락에서 파악하면서 학업동기를 지속시키는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년기라는 연령과 인간발달 단계상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지원시스템이나 유인력이 무엇인지도 파악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연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업지속 배경을 개인, 가족,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 유형별 심리적 복지 수준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양적 확대 및 내실화가 요구되는데, 특히 방송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고등교육기관인 만큼 다양한 학생들의 학업동기에 따른 교과과정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교과과정 및 콘텐츠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접 수 일 : 2008년 02월 25일
- 심 사 일 : 2008년 03월 25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6월 12일

【참 고 문 헌】

김경동·이은죽(1994).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김경민(2004). 중년기 남녀의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형(2005).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와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숙(2006). 중년기 여성의 내외통제성과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금운(1999). 중년기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와 다중역할 특성의 관계 및 생성감의 매개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명자·박수정(1992). 중년기 부인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지 7(12), 25-47.

김명희(2006). 중년기 기혼 남녀의 부부친밀감과 부부의사소통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희(2003).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방안.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김중서·이영덕·정원석(1994). 교육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김재인(1987). 후기 성인의 사회 교육적 학습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숙(200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생활교육프로그램 참가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화(1992).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영익(2006).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기영(1991). 중년기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범희(2007). 학습이론 및 심리. 서울: 하우.

이경자(2006).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업동기가 학교생활 적용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곤(2005). 지방공무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미(2007). 초등학생의 사교육과 학업동기, 부모양육방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영(1996). 시험불안 상황을 통한 Ellis의 A-B-C 모델의 타당성 검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정·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임은미(1998).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영자(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효정(2007). 생태학적 가족복지모형을 적용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5(5), 121-133.

정순례(2007). 학습이론의 이해와 적용. 서울: 북카페.

정옥분(2000). 성인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조예정(2002). 자원봉사활동이 중년기 여성의 우울정도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옥희(2004).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역할갈등,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5).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를 중심으로. 동강대학 논문집, 제 28집, 25-50.

조현철(2007). 학습기술, 학습동기,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미정(1993).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덕신(1992). 중년기 주부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돈민(2007). 평생학습사회만들기: 교육에서 학습으로 한국직업

- 능력개발원, 교육개혁포럼(공편). **평생학습제도의 발전 과정과 과제(189-213)**.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돈민 · 양홍권 · 이세정(200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운실(1986). **성인교육유형에 따른 교육참여 특성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1986). **한국의 교육 지표, 198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민아(1994). **세대간 지원교환관계와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경 · 성미애 · 진미정(2006). **가족발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Bryant, F. B. & Veroff, J.(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 653-673.
- Cam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Y.: Rusell Sage Foundation.
- Houle, C. O.(1961). *The inquiring mind: A study of the adult who continues to lear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 Maslow(1968). 정순례 역(2007). **학습이론의 이해와 적용**. 서울: 북카페.
- McKinney, J. C.(1966). *Constructive typology and social theory*. N.Y.: Meredith Publishing Company.
- Peck, R. C.(1968). Psychological developments in the second half of life. In Neugarten, B. L.(Ed.). *Middle age and aging: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88-9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ennant, M. & Pogson, P.(1995). 황원철 · 홍기형 · 이광원 · 김성열 · 김경희 · 성미령 역(1998). **성인학습과 삶의 변화**. 경남대학교 출판부.
- Weathersby, R. P.(1981). Ego development. In Chikering, A. W.(Ed.). *The modern american college: Responding to the new realities of diverse students and a changing society*(51-75). .OSan Francisco: Jossey-Bass.